

고난의 땅에서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본문: 창세기 41:37-5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82QAmYQ4d_w?si=AZrnh4e3sQd458V3(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인생의 험겨운 고난을 지나며 빠른 회복과 축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이라는 긴 종과 죄수의 신분을 벗고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의 삶은 그 기도가 가장 화려하게 응답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신 목적은 단지 그 개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공을 보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 한 사람의 행동을 넘어, 장차 다가올 극심한 흉년 속에서 '죽어가는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눈물의 시간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담는 거대한 그릇을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이쁨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위로'를 주셨고,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야 타인을 넉넉히 품을 수 있고, 내 삶에 은혜의 열매가 가득 차올라야 굶주린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육적 기근으로 통곡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람에게로 가라! 저 크리스천에게 가면 생명이 있고 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구원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개인의 문제 해결과 유익만을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확인하고, 신하들에게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감탄하며 칭찬합니까? (창 41:38)
2.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 애굽 백성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할 때,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창 41:55)

[삶의 적용]

1. 내 지난날의 상처와 눈물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창고'로 재해석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2. 삶의 기근을 만나 방황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열고 나누어 주어야 할 '은혜와 사랑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나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사 번성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근에 빠진 세상에 소망과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